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혁명의 고향군, 백두산아래 첫동네인 삼지연군을 세상에 들도 없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레년에 없는 폭염과 열풍속에 올해에만도 두차례나 군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또다시 삼지연군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전체 건설자들을 1단계 공사결속을 위한 보다 큰 위훈창조에 불려일으키시기 위하여 찬눈을 맞으시며 조국의 북변 삼지연군을 세번째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읍지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 공공건물들을 돌아보시면서 지난 8월에 와보았을 때 골조공사가 한창이였는데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부분 완공단계에 들어섰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삼지연군이 우리 당이 바라는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황홀한 자태를 드러냈다고 기쁨을



행한 삼지연군건설실태와 자재, 로력보장실태, 물자수송실태를 료해하시고 공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고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내각과 삼지연군건설지휘부에서 삼지연군안의 모든 대상건설을 2021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것으로 계획하고있는데 당의 의도와는 다르다고, 당에서는 건설을 3단계로 나누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기간안에 끝낼것을 구상하고 바라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창건 75돐을 맞는 2020년 10월까지 삼지연군건설계획을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다시 계획을 짜고 무조건 완수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020년까지 삼지연군건설을 끝내는데서 다음해가 관건적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읍지구건설은 매년도까지 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완공된 살림집에 들리시여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한 살림집의 구성구석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을 손색없이 잘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건설에 참가한 전체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이 북방의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에서도 불굴의 정신력과 드센 공격전으로 날마다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며 백두산천치주변의

건설대상들과 읍지구의 공공 및 산업 건물, 살림집건설, 도로공사를 비롯하여 올해 계획된 건설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재까지 진

전무결하게 완공하며 기타 대상공사들을 다그치기 위한 공정별, 순차별, 단계별, 년차별목표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설정하고 국가적인 력량을 집중하여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건설 2단계인 다음해 공사계획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공단위들에 공사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분담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 로력보장, 수송대책을 따라세우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모든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기세로 넘다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설계를 선행시켜 보장하며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 마감건재보장을 맡은 모든 단위들에서 증산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려 계획량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세멘트공장들에서 생산량을 늘여 계획된 세멘트를 무조건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와 함께 건설장 그 어디서나 한그의 세멘트, 한조각의 나무, 한개의 못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으로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지고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나라의 한끝까지 외닿는 귀중한 물자와 설비, 자재와 자금이 조금도 허실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이 현대적으로 건설되는데 맞게 전력생산대책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에서 삼지연군 중소형발전소들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며 군에서 발전소관리운영을 짜고들어 발전설비들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려 전기를 능력대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매년 강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자저장고의 온습도와 이산화탄소함량을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조절하는 자동조종체계에 대하여서도 알아보시고 가열, 통풍, 습도를 보장할 수 있는 가슴장치, 콘베아설비들의 능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감자입고와 보관, 저장고관리를 과학적으로,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엄격하게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의 기후풍토에 맞는 과학농법을 연구도입하여 앞으로 감자농사에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토지개량사업을 근기있게 내밀고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며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율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현대과학기술에 의하여 우량품종의 종자를 육종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자가루가 대대적으로 생산되는데 맞게 인민들에게 감자가루의 우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서도 알려주고 감자가루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널리 소개선전하여 식생활에 적극 받아들여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 7월에 삼지연군에 와서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땅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놓고 충정의 보고를 올리라고 하였는데 군에서 그 과업을 집행했다고 거듭 높이 치하하시면서 도와군의 책임일군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일군들과 함께 감자무지에 스팀없이 앉으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하고 또 강조하는것이지만 언제까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조급성에 사로잡혀 절대로 속도일면에만 치중하면 안된다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건설사업을 보여주기식, 깜빠니아식으로 걸치레나 하고 실속없이 하면 인민들과 후대들로부터 두고두고 욕을 먹게 된다고 하시면서 흙 한삽을 떠올리고 한평방을 미장해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주인답게 랑심적으로 간지게 하여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건축물들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만년대대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감독부에서 건설공법의 요구대로 시공지도를 짜고들고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구체적으로 감독통제하면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지휘부

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자주 조직하여 건설장의 분위기를 앙양시키며 맹렬한 집단지경쟁열풍속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는것과 함께 일부 단위들에서 시공과정에 나타난 결함들을 모든 시공단위들에 즉시 통보해주고 제때에 각성시키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인민병원과 삼지연군과학기술도서관, 추가되는 호텔들을 훌륭하게 잘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필요한 건설력량을 추가로 편성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들쭉단목과 단물, 들쭉술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들쭉음료와 가공품들을 생산하게 되는 삼지연들쭉음료공장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짧은 기간에 건설이 많이 진척되었다고 하시며 연말까지 공장을 완공할데 대

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삼지연군우리기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는 기특한 소행들이 높이 발양되고있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적, 전국각적으로 애국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삼지연군건설을 성심성의껏 도와주기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만1능력의 감자저장고안에 빈자리를 찾아볼수 없도록 무뚝히 쌓여있는 감자산을 보시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신듯 기뻐하시면서 삼지연군에서 올해 례년에 없는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감자농사에서 높은 수확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거리전경을 부감하시고 여러 요소들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진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사현장이 들썩하고 혁명열, 투쟁열이 충천하며 모두가 용기백배하여 새 위훈창조에로 떨쳐일어나 집단적혁신을 일으켜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거리형성안을 놓고 많이 연구하였는데 아직도 거리형



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한 제재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있지만 시련속에서 자기의 힘을 백배로 비축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강대한 나라를 꾸려나가는가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뚜렷이 보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다시금 강조하지만 모든것이 어렵고 긴장한 오늘과 같은 시기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과 같은 방대한 창조대전에서 련속적인 성과를 확대해나가는것은 적대세력들에게 들췌우는 명중포화로 되며 당의 권위를 옹위하기 위한 결사전이고 인

성전반이 예술적으로 완벽하게 세련되지 못하고 건물들이 독립적조형예술성만 부여되었을뿐 건물들사이의 예술적 호상성, 호환성, 권결성이 원활하지 못하며 건물높낮이배합이 조화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손의 다섯손가락도 길고짧듯이 건축구성의 다양한 형태 및 크기변화가 조화롭게 어울리며 예술적호환성이 해결되어야 해양공원도시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특성과 멋이 두드러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 8월에도 강조하였지만 30층이상의 러관, 호텔들을 더 추가배치할것을 예견해야 하며 관광지구 당 및 근로단체위원회, 경영위원회, 안전보위기관, 사법검찰기관을 비롯한 사무청사도 거리형성에 인입될수 있게 해안지대에 접근 배치하여 고층종합청사형식으로 건설하

라고 지시하시였다. 또한 해안관광지구거리안에 전자오락관, 종합경기장, 영화관들을 추가배치하며 해안선과 비행장사이의 공지에 대규모의 물놀이공원과 유희장도 배치하는것으로 계획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해안관광지구안에 종합주차장도 크게 건설하며 갈마역을 개건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대중교통수단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도 깊이 연구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번에도 강조하였지만 원림복화사업을 건설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림설계를 해안거리특성에 맞게 특색있게 잘하고 원림조성사업에 힘을 넣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처럼 현장정치사업과 후방공급사업에 항상 주목되는 관심을 돌리며 공사장의 질서유지, 주변정리, 로동안전대책, 각종 사고방지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설계를 선행시키고 자재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우며 시공지도와 건설감독사업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책임적으로 하여 모든 건설대상들의 공사가 설계상, 공법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날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명사십리건설현장을 돌아보니 머지않아 인파십리로 변할 그날이 벌써 보이는것만 같다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아름다운 우리 나라 동해기슭에서 문명하고 행복한 휴식의 한때

를 보낼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상상해보느라 힘이나고 기쁨을 금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나라사정이 의연 어렵고 긴장하지만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투쟁함을 자기의 주되는 투쟁과업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이 새 세기의 문명을 개척하며 정확한 령도력으로 새 세계를 설계해나가고있고 당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라나서는 천만군민의 절대불변의 의지와 단결된 힘이 있기에 이 땅우에는 비단 해안관광지구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 인민의 소유물들과 새로운 행복이 멈춤없이 일떠서고 창조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가

민의 행복을 창조하고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대중적영웅주의, 견인불발의 투지를 발휘하여 로동당시대의 투쟁본매, 우리 국가의 발전잠재력, 우리 식 발전속도를 만천하에 다시 한번 과시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건설자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 세상이 또 한번 놀라고 부러워할 인민의 문화휴식터, 인민의 해양공원이 다음해 10월 10일을 맞으며 보란듯이 일떠설것이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시면서 명사십리전역에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려질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과감히 돌진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이 부른 건설전투현장에 달려나온 련합부대의 장병들이 기세충천하여 만단의 공사준비를 갖추고 대기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당에서 구상한 대상건설을 힘있고 숨쉬있는 이 련합부대에 맡겨놓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일당백의 전투력으로 명성높은 련합부대의 장병들이 당의 신임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온천관광지구건설에서도 또 한번 본때를 보이며 소문을



끝내며 전력 및 체신보장 대책, 상수보장과 오수처리 대책, 철도로선과 도로망개건확장계획, 원림복화계획을 잘 세우고 선형공사들을 추진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양덕군의 온천관광지구건설과 경성군의 온천온천휴양소개건사업을 틀어쥐고 내밀고있는데 이 대상들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도들에서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자기 지역에 있는 온천들에 휴양지를 문명하게 꾸리는 사업을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을 낼것이라고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천관광지구건설총계획도안에서 여러가지 배치방안들을 료해하시면서 건설총계획수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일대는 교통조건이 유리하고 주변경치가 아름다우며 온천용출량이 대단히 많고 온도도 높을뿐만아니라 주요성분이 단순균토, 류황, 불소—약알카리성으로서 여러가지 질병치료에 효과가 좋아 훌륭한 온천료양 및 관광지구를 꾸릴수 있는 명당이라고 하시면서 설계를 우리 식으로 특색있게 하고 봉사사업을 잘하면 인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문명한 생활을 향유

할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거점이 마련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천관광지구개발을 위한 선행공정인 설계를 빨리 완성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것을 다 참고하여 건축미학적으로나 편리성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천관광지구가 료양소구획과 관광휴양소구획으로 나누어 건설되는데 맞게 세계 여러 나라들의 온천봉사시설들의 자료를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기술과 제서작성부터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얼마전 국

무위원회 설계국에서 제출한 온천관광지구건설을 위한 제의서에는 온천관광지구 대상들의 기술과제서작성을 보건성, 로동성, 국가관광총국, 인민봉사총국을 비롯한 내각산하 성, 중앙기관들에 메말기는 식으로 하겠다고 반영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당의 의도에 맞게 온천관광지구를 세계적수준으로 개발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몇달전에도 비판을 했지만 낱아빠진 휴양소, 료양소들을 불안고 그 수준이 얼마나 뒤떨어지고 한심한지조차 모르고 전혀 움작도 하지 않고 동면하고있는 보건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 어떻게 세계적수준의 관광휴양 및 료양기지꾸리기와 관련한 기술과제서를 내놓겠는가고 하시면서 이

사업은 당에서 직접 구상하고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향유와 건강증진을 위해 발기한 대상건설인것만큼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와 국무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맡아 정부병원과 긴밀히 협동하여 기술과제서를 작성하며 국무위원회 설계국이 기본이 되어 설계를 진행하되 필요한 설계기관들의 능력있는 역량도 인입하여 강력한 설계집단이 달라붙어 잘해야 한다고 하시며 오랜 시간에 걸쳐 설계작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천관광지구건설을 인민들과 약속한대로 다음해 10월 10일까지 최상급으로 훌륭하게 완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올해 년말까지 건물들의 기초공사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우리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적지 않은 대상건설을 진행하고있는데 현재 조건이 특별히 좋고 여유가 있고 풍족하여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확고한 결심과 강렬한 의지에 의하여 만년을 무릅쓰고 일떠세우는 하나하나의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온천관광지구건설을 통채로 맡겨준 당의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인민의 장한 아들 딸들답게,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답게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또 하나의 인민의 소유물을 훌륭히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역적패당이 떠드는 《보수정치의 새로운 가치론》을 평함

평화변명을 향한 민족사의 흐름에서 밀려나 개발도 도토리신세가 된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이 살기를 찾아보려고 《쇄신》과 《혁신》의 민지구를 일으키던 끝에 《보수정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라는것을 내놓고 요란히 광고해대고있다.

그 무순 《6대혁신가치》니, 《6대핵심가치》니 하는 잡동사니들로 매다질된 《새로운 가치론》이라는것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살펴보아도 《새로운 것》이란 표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다.

과도처럼 밀려오는 민족화해의 시대에 부응하여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전혀 보이지 않고 민심을 우롱하는 말장난뿐이다.

보수패당이 떠드는 《새로운 가치론》은 장마철의 어지러운 탁류와 같이 그 맑음에 대해 논하는것 자체가 이 불성실이지만 민대의 요동만 한 체면도 없이 해피한 껍데기로 여론의 환심을 사보려고 꾀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허황성거 불순한 속내에 대해 까뻑히 보고져 한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보수정치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국가도덕성》을 내세웠다.

이들의 본질은 높은 도덕성이며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개인의 권력 남용이나 자의적행사로 국가도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권력구조개혁에 앞장 선다는것》이 그 골자이다.

이들이 제창하는것을 보면 보수야말로 누구보다 고상한 도덕관을 지니고 사회발전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시기 세상을 들었다놓은 리명박, 박근혜도가 저지른 특대형 범죄행위도 철저히 개인의 부정부리와 권력형에 국한된것으로서 보수와는 인연이 없다는것이다.

순양이가 자기는 날고기가 아닌 풀을 뜯어먹는다고 하는 이소프의 우화를 련상케 하는 극히 파렴치한 껍데기 아닐수 없다.

그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도덕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인민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하다면 한때 리명박, 박근혜와 같이 춤추던 남조선의 보수패당의 행태는 어찌하였는가.

《퍼담홀려 일하면서도 (홍수저)》로 취급받는 빌어먹을 세상에 대한 분노로 무엇이래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부터 투쟁에 나섰다. 《열감, 아버지가 개, 돼지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개, 돼지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벌을 들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박근혜당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초벌항쟁에 일떠서면서 웨친 이 피타는 절규

가 그에 대한 대답이다.

남조선인민들을 말하는 미물로 여기면서 온갖 불법부법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 진보민주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비렬한 모략책동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하고 권력형부정부패를 일삼아온것이 다름아닌 보수의 본래이고 변할수 없는 체질이다.

쉬파리는 시궁창의 악취를 향수로 느끼고 감람속의 미꾸라지는 감람관을 더없는 천국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리승만역도의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의 《자유한국당》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와 채륜페덕의 계보를 이어오며 《색은 당》, 《매덕당》의 악명을 떨친 보수패당이 별안간 《도덕성》이라는 면사포를 쓴다고 하여 색은 몸통에서 나는 구린내를 감출수 있겠는가.

지금 보수패거리들이 그 무순 《정의로운 보수》니, 《혁신》이니 하고 너스레를 떨고있지만 이자들은 속으로 보수 《정권》에 철주를 내린 민심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있는 악마들이며 파쇼독재부활에 명줄을 걸고있는 극악한 파쇼파당이.

결국 이자들이 떠드는 보수의 《도덕성》 라명은 창녀의 절개자랑과 다를바가 없는 게나발일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튼튼한 안보》

니, 《당당한 평화》니 하는것도 《보수정치의 새로운 가치》라고 광고하고있다.

력대 보수패당이 《안보정당》으로 자처하며 그 어느때나 칠팔월 개구리보다 더 소란하게 떠들어댄것이 《북위협설》, 《전쟁위협설》이다.

전쟁의 먹구름이 떠도는 음침한 환경을 보수가 살아갈 최적의 생태조건으로 삼는 역적무리들은 역사적인 북남 수뇌상봉과 공동선언들의 채택으로 밝아오는 평화의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막아보려고 《안보》라명을 불어대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 발표된대 대해 지상, 공중, 해상을 모두 내준 합의이다, 스스로 안보를 무장해제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갔다, 국민들이 참말로 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걱정이 여간 크지 않다고 고아대며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서검증특별위원회 라는것까지 조작해내는 광대놀음을 벌였다.

전쟁이 없는 조선반도는 적대와 대결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보수패당에게 있어서 서식지의 상실과 《안보장사》의 끝장을 의미한다.

하기에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적환경을 구축하자라는것을 죽도

록 싫어하는 보수패당이 떠드는 《튼튼한 안보》, 《당당한 평화》란 결국 동족대결과 전쟁위기로 저들의 더러운 명줄을 이어가자는것의 다름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낮간지럽게 설파하는 《따뜻한 사회》와 《준비된 미래》라는것도 민심을 우롱하는 요설에 불과하다.

보수의 품이 그렇게 따뜻해서 《세월》호의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바다속에서 수장되어 생극을 당했고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참혹하게 쓰러졌는가.

보수가 만든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워서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각종 살생부에 올라 인권을 자유를 무참히 짓밟혔고 남조선이 자살순위 세계 제1위를 기록하였는가.

보수가 내흔드는 《따뜻한 사회》란 민중을 지렁이처럼 여기며 각종 요시찰 명단같은것들을 조작하여 탄압하고 민주민권을 강그리 말살하는 지옥사회이며 《준비된 미래》란 가진자가 더 잘살고 못 가진자는 더욱 빈궁속에 몰아넣기 위한 제2, 제3의 리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활이다.

역사와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의 자리에 다시 제마라올라가 《괴의 복수》를 하겠

다는것이 보수패당의 검은 속통에 껴차있는 양심이다.

이러한 불순한 기도를 실현해보려고 역적패당은 속에 없는 《새 가치론》을 내놓고 민심을 낚으려 하고있고 개혁의 발목을 잡으며 남조선사회발전에 제동을 걸고있다.

독사는 열백년 허물을 벗어도 독사인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혁신가치》를 떠들어대도 그 추악한 본색은 절대로 달리 될수 없다.

지금 남조선각계는 민족화해와 평화변명의 도도한 흐름에 눈길을 틀어막고 파리의 암흑속에서 꿈틀대는 보수무리들을 놓고 《우물안에 앉아 리념의 색안경을 끼고 변화를 거부하는것들》, 《상진벽처럼 달라진 세상에 비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수구보수세력》이라고 침을 뱉고있다.

격류하는 대세에 역행하는자들은 역사의 파도에 삼키워 멸망하는 길밖에 다른 운명이 차례질것이지 않다.

남조선 각계층은 력사의 흐름을 암흑의 과거로 되돌리려고 발악하는 보수패당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적폐청산의 불길드높이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와야 할것이다.

김연이
(《로동신문》에서 전재)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앞당기기 위한 지름길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은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위협과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종식시켜 이 땅을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평화선언이다.

북과 남은 제5차 북남 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평화합의서》를 《9월평양공동

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평화합의서》의 채택은 이 땅에서 전쟁위협을 가시고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겨레와 전세계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9월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평화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는데 북남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조선반도에서 적대관계를 청산하며 평화보장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북남 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가기 위한 제반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이 반영되어있다.

또한 《9월평양공동선언》은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평화합의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은 더욱 가속화될것이며 통일과 민족의 번영도 앞당겨 이룩될수 있을것이다.

북과 남은 북남군사공동위협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

사분야합의서의 리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항시적인 련계와 협의를 진행해나가기 한다.

또한 군사분야에서뿐만아니라 각계각층의 대화와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적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북남산층리에 융용되 호르도록 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평화와 번영에 도 향한 성스러운 려정에 언제나 두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서 서서 함께 나아가갈 때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앞당겨 성취될것이다.

김연일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 겨레가 사는 곳 그 어디서나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 통일에 대한 열망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속에 북남관계가 활기있게 발전하고있다.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사업으로 10.4선언 발표 11돛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조국통일사에 특기할 전 민족적인 대회합으로 성대히 치러졌으며 북남고위급회담도 진행되어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이 진지하게 협의되고 공동 보도문이 채택되었다.

이번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된 북남장령군사사회

담에서 북과 남은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부속군사합의서의 첫 단계실행정형을 종합적으로 점검총화하였으며 다음단계리행에서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들을 논의하

우리 겨레가 한자리에 모이던 조국통일의 좋은 방도가 나오고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은 《9월평양공동

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한다.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갈것을 확약한 민족자주의 선언이다.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운명

을 앞당겨 이룩될수 있을것이다.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 공동의 리익에 맞게 능히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다.

북과 남이 손잡고 화해와 평화번영으로 향해 나아가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우리 겨레모두를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으로 힘있게 부르르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기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법률적, 제도적장치부터 제거해야 한다

최근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새로운 흐름을 타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속에 남조선 각계층에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는 《5.24조치》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장치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여야정치인들과 정계, 사회단체인사들은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한발이라도 앞서나가면서 《5.24조치》 같은것을 풀어야 한다.》, 《우려측이 《5.24조치》 해체 등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문제의 《5.24조치》로 말하면 지난 2010년 리명박역적패당이 모략적인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하여 공화국과의 접촉과 협력교류를 차단한 대결조치이다.

리명박패당이 《매해 3억US\$의 벌금》, 《시간은 북의 편이 아니다.》고 고이대면서 꾸며낸 《5.24조치》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말갱아하지 않는 그들이 실시해온 국도의 동족대결정책의 연장이었으며 또 하나의 악명 높은 반통일조치였다.

보수패당은 이 《조치》라는것을 구실로 민간접촉마저 전면 불허하였으며 민간단체들사이의 통신 련계와 기사교류까지 차단하였다.

그러나 하면 제3국을 우회한 물자반출입을 막는다고 하면서 《합동정주점검단》이라는것을 내오고 부산, 평택 등지의 모든 세관과 항구들에 살벌한 경계망을 펼치고 장부책과 물자들을 살살이 뒤지는 놀음을 벌리었다.

심지어 그 무순 《자금지단》, 《접촉위협》을 떠들면서 남조선 사람들이 제3국에서 공화국이 운영하는 식당들에 가서 식사도 마 음대로 할수 없게 오금을 박는 나쁜짓도 서슴지 않았다.

《5.24조치》가 북남관계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에게 준 피해도 막대하다.

남조선인민들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5.24조치》발표이후 1년반동안에만 해도 북남민간협력사업에 참가하였던 남조선민간기업들이 입은 경제적피해액은 개성공업지구사업속소, 북남 교역과 임가공중단 등으로 인한 직접손실이 27억 5 000만US\$, 간접손실은 74억 8 000만US\$에 달하였다.

북남협력사업중단으로 물가상승, 외자유출, 기업대량파산 등

의 사태를 불러와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6.15통일시대와 함께 활기를 띤던 남조선의 수많은 민간협력업체들과 단체들이 존재를 마쳤거나 파산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오죽했으면 북남민간협력사업에 명줄을 걸고있던 많은 남조선주민들이 살아갈 희망조차 잃고 자살의 길을 택하였는가. 결국 《5.24조치》라는것은 제순으로 제는 찌르듯이 남조선인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울가미라는것이 시간이 갈수록 명백해졌다.

북남관계의 개선을 가로막고 남조선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온 《5.24조치》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이 북남관계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선 오늘날까지 잔명을 유지하고있는것은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 각계층이 요구하는것처럼 북남사이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력사적흐름에 맞게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는 《5.24조치》를 비롯한 법률적, 제도적장치부터 제거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야 국제사회의 호응도 받을수 있다.

강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북남관계는 피를 나는 동족사이의 관계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치되어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 조국강토안에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있다. 조선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환경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모든 조선사람들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족이며 민족공동의 리익과 공동된 민족적생리와 감정으로 뭉수 없이 련결되어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우리 민족과 민족성을 말할수 없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

다. 자주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

조국통일의 주체의 위력을 강화할 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진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6.15자주통일시대에 당국과 민간이 따로 없이 사상과 정경,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사업,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활기있게 진행되어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힘있게 주도하였다.

우리는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민족의 강의를 빼앗기고 약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은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민족의 강의를 빼앗기고 약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되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추구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적적요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희생시키고 지향시켜나가기 한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찾자리에 놓으며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인 기 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렬리간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의를 빼앗기고 약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은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민족의 강의를 빼앗기고 약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본사기자 최광혁

5월1일경기가 자리잡고 있는 룡라도는 평양의 명승지이다.

알고보니 여기에는 매우 흥미있는 전설이 깃들여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원래 룡라도는 대동강중류인 성천을 관내 비류강에 있었는데 몇백년전 큰 홍수때 평양의 지공위치에로 떠내려왔다고 한다.

룡라도가 성천땅에 있을 때 땅이 기름지고 옥곡이 잘 자라 근방농민들이 모여들어 큰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그런데 농민들의 등팔을 빨아먹는데 이골이 난 성천을 박부사가 오면서 사람들이 삼천을 경내를 벗어났으면 좋겠다고들 말하곤 하였다. 어느해 여름 큰 장마로 하여 비류강은 바다처럼 범람하였다. 이때 룡라도는 비류강의 사물속에서 움설 움설 움직이더니 섬진체가 배처럼 하류로 떠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캄캄한 어둠속에 표류하는 배처럼 떠내려가던 섬은 청류역에 대동강 한복판에 와서 득 뗏었다고 한다. ...

바로 이런 전설이 깃들여 있는 섬 룡라도에 하늘에서 내려앉은 은백색의 대형력 하산모양으로 웅장하게 솟아난 5월1일경기장에서 지난 9월 9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첫막이 올랐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속에 공화국기가 오를 때 나의 심중은 그 뒤라 말할수 없는 숭엄함과 뜨거움에 젖어들었다.

공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처럼 황홀한 공연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빛나는 조국》공연, 그것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여온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파시한 공연이라고 나는 말

《빛나는 조국》에서 조선을 보다(1) 천만이 하나가 된 단결의 나라

조선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인류문화의 대재보》, 《세계적인 대결작》이라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이 행성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하루이틀도 아닌 몇달동안 무더위와 비바람속에서 땀흘리며 온갖 열정, 심신을 바쳐 겨레와 인류에게 그토록 훌륭한 공연을 보여준 출연자들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조국방문기간에 이 공연을 두번이나 관람하는 행운을 지니었다. 그때 받은 흥분과 강렬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작은 물방울에도 우주가 비낀다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는 동방의 신비한 나라로 알려진 조선의 모습이 응축되어있다고 할수 있다. 공연을 보면 조선의 얼굴이 보이고 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알수 있다.



하고싶다. 미래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친 공연은 높은 사상성과 독특한 예술적향기를 내뿜으며 모두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체조와 예술의 결합으로 변화무쌍한 황홀경을 펼치는 《빛나는 조국》의 매력은 한마디로 표현할수 없다. 거대한 리체적공간속에 펼쳐지는 아름답고 우아한

를동과 기백있는 체조, 품만한 민족정적서와 세련된 예술적형상, 천변만화하는 배경대, 화려한 무대장치와 특색있는 조명, 바닥형상과 공중교예예술의 유기적결합... 그중 근 2만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배경대는 정말로 놀라울것이었다. 이번 공연에서 흥미로운것은 공연시작을 앞두고 진행

이었다. 경기장바닥을 누비며 힘차게 휘날려가는 무수한 기복의 퍼덕임속에서, 천지개벽한 대지로 북소리 등등 울려가고 최첨단과천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는 공화국의 현실이 비친 화폭들에서 나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봉쳐 승리만을 이룩해가는 공화국인민들의 끝없는 환희와 방만을 느낄수 있었다.

출연자들이 박자, 룡동, 대형, 지어 호흡과 눈빛마저도 하나의 같이 맞추어 펼쳐는 애국의 신비, 5월1일경기장의 거대한 공간을 꽉 채우며 하늘과 땅에서 리체적으로 벌어지는 특기장면들은 예술적기교이기 전에 마음과 마음, 심장과 심장이 하나로 합쳐져 창조된 영원불멸할 혼연일체의 화폭인 것이었다.

내일에 앞섰던 재미동포도 격정과 흥분에 휩싸여 《정말로 바늘구멍만 한 틈도 없는 완전무결한 작품이다. 잘 짜인 공연은 그대로 복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저런 훌륭한 공연을 세계의 그 어느 나라가 흉내낼수 있겠는가.》고 말하는 것이었다.

한번 보면 영원히 잊을수 없는 강렬한 충격을 안겨주는 《빛나는 조국》공연은 조선민족의 우수성의 상징, 시간의 흐름조차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신비의 무아경, 세계에 기록될 명작이며 조선의 진주보석이다.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황홀한 화폭은 펼쳐수 있지만 그 화폭과 더불어 산악같은 힘을 새겨안게 하는 진리는 원한다고 하여 누구나 력사에 새길수 있는것이 아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야말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온 세계에 독특히 보여주었다.

재중동포 김희진

—원산사에서 사는 리향옥녀성—

예로부터 조선녀성들이 즐겨입는 고유한 민족옷의 하나인 조선치마저고리는 공화국의 녀성들 누구나가 좋아하는 옷이다.

거리에 나서면 조선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오가는 녀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받곤 하는 한 녀인이 있다. 그가 바로 강원도 원산시원의봉사관리소 동해조선옷전시회에서 리향옥(56살)녀성이다.

그는 해마다 진행되는 조선옷전시회에 참가하여 순회유승기를 여러차례나 쟁취하였다. 리향옥녀성이 쟁취한 공훈채단사이다. 민족옷제작에 한생을 바쳐가는 길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본다.

그는 기능공학교(당시)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던 그날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우리의것을 지키고 빛내여가리라 마음다지었다. 그러나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려는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선옷을 잘 짓자면 력사적으로 전해오는 민족 옷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하였다.

그는 조선옷제작으로 바쁜 속에서도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때로는 전문가들을 찾아 떠나던 밤길도 있었고 조선옷제작에 필요한 도서들을 안고 돌아오던 새벽길도 있었다.

조선옷의 전통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만들기 위하여 그가 지새운 밤은 얼마였는지 모든

조선옷을 짓는 공제와 보람

이런 뜨거운 애국의 마음으로 윤간고 리향옥녀성은 수십년전 조선옷제작에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오고있다. 리향옥녀성이 걸고있는 그 길을 지금은 그의 딸이 걸고있다.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강직한 조선민족의 님과 기상이 그대로 비껴있는 정결하면서도 소박하고 우아한 우리의 조선옷을 더 훌륭하게 제작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민족의 력사문화전통을 갈없이 이어지고 더욱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진혁

과학으로 체육강국건설을 추동한다

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인 훈련기재였다. 이 대학의 리철산 체육과학연구소 소장은 대학안의 연구사,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훈련기재를 제작하였다. 이 훈련기재를 리용하여 단위시간동안에 교수밀도를 높이고 최단기간내에 기술수준을 빨리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신심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는 이 훈련기재는 어디서나 리용할수 있을뿐아니라 적은 원가를 가지고 자체로

능히 만들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단위들에 도입해본 결과 실전속에서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은정구역 청소년체육학교에서 내놓은 이동식탁구공편환 및 측정훈련기재도 많은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기재는 좌우연결결합과 속도, 힘, 회전력에 대한 치기기술과 불의에 변화되어 오는 공에 대한 민첩성을 키우도록 하는데 기본을 둔 훈련기재로서 탁구기초기술을 배



제 16 차 전국 조선 옷 전시회장

《고려의학의 경락과 경혈신경도 전자침구모형체계》 개발

고려의학연구원의 의학자들이 고려의학발전에서 이바지할수 있는 《고려의학의 경락과 경혈신경도전자침구모형체계》를 새로 개발하였다. 이 체계는 크게 고려의학의 경락과 경혈신경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형도판과 침구경혈도의 발전과정과 경혈신경도전자침구모형, 도서 《침구의 현대학적구조와 임상》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경락리론의 과학화를 실현하여 침구의 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한 이 성과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의학인 고려의학의 더욱 발전시켜 고려의학의 치료방법의 우월성을 힘있게 파시하는데서 또 하나의 도약으로 된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조선사람의 신체구조에 알맞게 창조하고 발전시킨 침구치료는 그 방법이 다양하고 독특하며 치료효과가 좋은 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에도 널리 알려져있다. 고려의학연구원은 지난 난 시기 고려의학과 현대의학을 배합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여러가지 치료방법들을 적극 개발하였다. 특히 침구연구소의 의학자들은 침구학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경락과 경혈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도있게 벌려왔다. 이들은 경락과 침혈통, 장부들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한데 이어 고전경혈신경도에 현대의 학의 신경리론을 배합한 침구경혈도를 설계함으로써 고려의학부문에 큰 의의를 가지는 금속침구모형과 원격경혈도를 제작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과학자이며 교수, 박사인 김숙영선생과 연구사 전일, 계순남, 강봉식선생들은 현대의 학발전의 추세에 맞게 경혈신경도전자침구모형체계를 새롭게 개발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대형경혈신경도아크릴수지 침구모형을 제작하고 방대한 량의 학습-치료지침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였으며 침구의 현대화와 관련한 도서도 고전적인 침구학의 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현대학적으로

민족성을 굳건히 지켜가고있는 《얼싸》성원들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국땅에서 조선민족의 넋을 곳곳이 지켜가고있는 해외동포들속에는 재일동포들도 있다. 올해 1월말 일본 사이타마현의 어느 극장앞에는 류다른 광명이 펼쳐져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땀만 추워도 불구하고 극장문을 열기 2시간전부터 줄지어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모두의 얼굴들에는 남다른 흥분과 격정이 엮여있었다. 지나가던 일본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 극장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가고 물었다. 사연을 알게 된 그들은 더욱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이타마지역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이 자제로 가족을 만들었는데 이날 첫 공연을 한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다양한 형식의 노래와 관현악 등으로 이루어진 음악예술의 가장 큰 형식으로 알려져있다. 대사와 행동은 기본으로 하는 연극과는 달리 시종일관 다양한 형식의 노래들과 관현악, 무용, 무대미술 등 여러가지 예술적수단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속에서 극적내용과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묘사되는 예술형식이 다름이 없다. 그럼대 전문예술인들도 아

—재일 동포 사회에서—

닌 일반 재일조선인들이 가족을 창조하였다니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겠는가. 출연자수만도 10살 난 어린이로부터 70대로인 이르기까지 무려 13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가족창조력량의 핵심은 사이타마지역 동포문제협의회 《얼싸》의 성원들이었다. 바로 그들이 대표작품으로서 시작하여 작사, 작곡, 연출, 지휘, 안무, 무대미술, 기량지도를 맡았다. 하다면 사람들을 놀래우며 가족을 창조한 《얼싸》는 어떤 단체인가. 사이타마지역 동포사회는 대중문화예술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다. 이곳에는 각 지 부마대에 장고소주, 무용소주 등 많은 예술소조들이 있는데 《얼싸》는 바로 이러한 우수 전통을 가진 지역동포사회의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세계에 예극운동의 요구에 맞게 더욱 힘있게 추동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인데다. 예로부터 즐겁고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면 《얼싸》의 흥겨운 장단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던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